

“보수 표심 잡자” 통합 정부 경쟁

안철수 “집권하면 통합내각 구성 최적의 협치”

문재인 측 박영선 “통합정부추진위 주내 발족”

‘선택 2017’ 대선 D-18

갈 곳 잃은 보수 표심 향배가 대선 변수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통합 정부 구성’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기사 2·3·4·5·6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0일 여의도 서울마리나클럽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집권하면 통합내각을 하겠다”며 “현재 다른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등용해 쓰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집권하고 나면 다른 당들과 의논해서 최적의 협치의 틀을 만들겠다”며 “분명한 것은 저는 통합내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계파정치에 매몰돼 유능한 인재가 많은데도 널리 등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편에서 무능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며 “그래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차기 내각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소속도 등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다들 대한민국 인재 아닌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최적의 인재가 다른 당에 있다면 그 사람을 쓰겠다”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인사와 적폐 세력을 제외하고 혁신과 통합을 매개로 지역과 진영 논리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메시지로 읽히고 있다. 이를 통해 중도와 보수 표심의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진영의 ‘통합’ 공세에 민주당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은 20일 “이번 주 발족하는 통합정부

추진위원회에 전·현직 의원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실무단이 꾸려진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 간담회에서 “당내 경선을 마치고 나서 안희정 지사를 도왔던 의원들이 문 후보를 돕기로 결론을 내린 뒤 문 후보와 만나 통합정부 실무와 관련 얘기를 했고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희정 지사가 내세웠던 대연정으로 상정되는 통합 정권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의원은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대통령 뽑아주고 나면 자기들끼리 토폴 뭉쳐서 뭐 하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아주 강하다”며 “문 후보께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니 ‘통합정부를 하겠다’는 말씀을 확고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자유한국당 내에도 건강한 정치인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상도동계 좌장인 김 이사장은 “지금 나라를 망친 국정농단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강한 세력들은 보수·진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다시 논란이 된 ‘호남홀대론’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연구물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역 인구보다 이 지역 출신 정부직 비율이 높았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나주혁신도시 한전 이전, 여수엑스포 유치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 등에 참여부 아래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5월 황금연휴? 우리 그림의 떡 ▶7면

新팔도유람-경기 도보여행 4선 ▶18면

광주FC “너 잘만났다. 상주” ▶20면

광주일보 창사 65년...“100년 신문을 향하여”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기념식이 20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렸다. 김여승 사장을 비롯해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출신인 윤장현 광주시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강동완 조선대 총장, 권은희 국회의원, 리더스아카데미 역대 회장단이 축하 떡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광주일보는 이날 제2창간의 의지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관련 기사 22면

UN 본부에서 5·18 국제학술대회 열린다

5·18기념재단·외교부, 내달 26일 공동개최...출판기념회도

브루스 커밍스 교수·언론인 등 참석...오월정신 세계와 공유

미국 뉴욕 유엔(UN·국제연합) 본부에서 5·18민중항쟁을 알리는 국제학술대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5·18기념재단은 5·18 37주년 국제학술대회와 출판기념회를 다음달 26일 유엔본부에서 외교부와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외교부는 유엔주재 한국대사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로

을 공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학교 석좌교수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등 해외 인사, 5·18을 취재한 외국 언론인, 미국 곳곳에서 해마다 5·18기념행사를 열어온 미주한인회 관계자 등이 초청된다. 5·18재단은 다음주 뉴욕 현지

를 방문해 외교부 관계자와 함께 행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5·18재단 관계자는 “민주주의와 인권

사를 개최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는 5·18정신을 세계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18재단은 지난 1월부터 유엔본부에서 5·18 기념행사를 개최하려고 준비해 왔으나 외교부가 확답을 늦추면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최원석 외교부 인권사회과장은 “행사 취지와 명칭을 둘러싼 해석차이가 있었던 데다 5·18단체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정자치부 등 유관부처 의견 수렴을 하느라 협의가 늦어졌다”면서 “정부 공식 기념행사가 아닌 5·18단체의 국제 학술행사로서 치러지는 이번 행사를 외교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월호 선체 조사 5월 말 개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이르면 5월 말 공식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김장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은 20일 “예산안이 확정되고 직원을 채용해야 조사가 시점이 확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조위는 이번 주부터 미수습자 수습 집중하느라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증거

조사에 대한 내부 준비를 본격화한다.

선조위는 21일 두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증거 서류들을 누가,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 처음으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선조위가 넘겨받는 기록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법원, 감사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위원회 심판 기록 등이다.

이중 검경합동수사본부 기록의 색인만

예산·직원 확보해야 가능

증거 조사 준비 본격화

1800 페이지에 달하는 등 기록을 다 합치면 수십만 페이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조위는 이미 조사가 진행된 자료를 토대로 세월호 선체에서 나오는 직접증거와 비교 검증하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조타기 고장 의혹을 수사한 결과 증언을 세월호 선체 조타실 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를 진행하다 못한 부분

등 미진한 조사내용은 추가 조사를 통해 보완한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사, 해상·해사, 기계 전문 등으로 나눠 인력 배분을 어떻게 할지 등도 논의한다. 특히 외국 감전기관인 브록스 벨과는 별도로 국내의 기술진이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추가 검증기술진 투입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라는 증거물이 나왔으니 기록과 대조해가면서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매주 금요일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준비 작업을 진행, 공식 조사 개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www.joytour.kr

무안출발 일본여행

이 가격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미친 특가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발하는 일본여행
이제 무안에서 출발하세요

5월7일 무안출발 항공+하카타출발 선박 5월10일 하카타도착 선박+무안도착 항공
4월 299,000원~ 3월 299,000원~

- 공통포함사항 : 편도항공, 편도선박, 현지차량, 일본현지식사
- 불포함사항 : 기사, 가이드 경비(₩30,000/인), 국내수송

美親특가 항공권 (공항세 및 유류세 포함)
매주 일요일 무안 출발 - 기타큐슈 편도 **39,800 원**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NAVER **조이투어** 검색
TEL: 062-234-3222 FAX: 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대표이사 **최금환**



여행경비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전철버스 / 상의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영업보증보험 가입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